

대한전기협회에서는 200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기관련 단체장들의 전력산업계에 바라는 소망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체장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순으로 게재를 합니다.

(편집자 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발굴과 제도를 개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주창현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전기공사는 전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작부터 최종단계까지 빠짐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전력산업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 1만1천회원과 함께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발굴과 제도를 개선하고 협회 역량 강화 및 운영합리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 대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산업 및 기업은 규제와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하고 생존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도 요구받고 있으므로 향후 전력산업의 과제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전력산업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SI, 전력IT 등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리경영, 소비자및 환경보호 등을 통해 친 사회적 산업으로의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3. 각 산업간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입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력산업은 전기계의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인 만큼 어느 한 분야라도 침체 되거나 위축된다면 전력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계 각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전기인들의 단합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계의 화합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및 전기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전기계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기계의 구심점으로서 전기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공고히 하고, 회원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자산증식을 위해 협회와 조합이 공동협력기구로 발족한 전기공사업발전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사업 추진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전과의 MOU 체결,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지난해 성취한 전기공사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새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기계 각 분야의 단체나 종사자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력산업발전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한전기협회의 노력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전력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산업의 각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 내지는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량위주의 운영보다는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스피드하게 전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규현

1. 신년을 맞아 귀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난해를 회고해 보면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국내경기의 부진세가 계속된 가운데, 우리조합도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제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쳐온 한해였으며 투명한 조직문화와 조합원사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원사의 충격을 완화하고 판매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건의하여 2007.1.1부터 시행토록 반영하였고, 중전기 제품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업체 추천권을 조합에 주도록 건의하여 법제화 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직접생산확인 업무확행, 계약기간의 연장조치 등 조합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복수조합 설립 등 정부의 신공공구매제도가 도입단계에서부터 혼란스러워 조합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만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원사 들의 공통필요 자재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양질의 자재를 저가에 대량 구매함으로써 조합원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합의 구심력을 유지할것입니다. 현재 공동구매는 50억원상당에 불과하며 대상품목도 변압기 규소강판과 절연유로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는 붓싱, 외함 등 변압기 자재는 물론 차단기, 부스바등 배전반 자재에 대해서도 공동구매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위주의 운영보다는 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스피드하게 전개되도록 할 것이며,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그동안 이루어놓은 조합의 위상을 착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의 흐름에 따라 조합원들이 가야할 목표에 맞는 지표를 제시하여 주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신뢰받는 조합으로 남아있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산업의 중심에는 우리 중전기기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중전기기산업과 일반제조업과의 특징을 비교하면, 제품 선정조건에 있어 일반제조업의 경우 성능,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반면, 중전기기 산업은 신뢰성, 성능 등을 더욱 중시하고 있어 사고 시에도 일반제조업은 개별제품에 국한되며 사고복구에 단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중전기기 산업은 계통에 관계되는 전체 또는 광범위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사고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과 수익중심의 전력산업 정책이 아닌, 안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전력산업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력산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각 산업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전기 산업은 소량 다품종 주문생산위주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력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변경이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전력관련 전문 단체에서 중전기제품의 규격화, 표준화와 아울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전기기 산업은 정부의 내수시장 보호아래 경쟁이 미미하여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의존한 제품 생산기술에만 치중, 기술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주로 시장구매보다는 주문에 의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가지는데 수요기관들이 신규제품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의 경우 사용실적이 있는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수요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경쟁력도 취약한 상태로 있어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일정기간 신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미비한 중소기업체가 많아 이들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데 전기협회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전기협회가 정해년 새해를 맞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정 현 교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전력산업계가 과학 기술력을 통한 국가 당면과제의 해결이라는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미래 핵심기술의 전략적 선택과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력과 에너지 산업, IT를 접목한 전력산업의 신기술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력IT에 의해 창출되는 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력IT 인력양성사업 및 대학의 기초인력양성사업, 동·하계 교육 강좌를 통한 핵심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전력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지향적 인재 양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산·학·연간 체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007년에는 전력 선행기술사업 및 전력IT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등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계의 연구 잠재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전력산업의 기초연구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산업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 경향과 민영화라는 개편의 시기를 거쳤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자원 확보 경쟁의 첨예화,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및 균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력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고유가 시대의 에너



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과 동시에 IT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신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산업체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전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3. 각 산업 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과학기술은 IT, NT, BT 등 급격한 기술변화의 환경 속에서 각 산업 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 있다. 이에 우리 전기계는 회원사 간의 기술정보와 신기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미래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계, 학계, 연구소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복합화 되어가는 미래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가 전력산업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협회는 전력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기술개발, 우수인재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관심 사항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고, 회원사들에게 전기협회의 역할 및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국제 세미나 및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 전력기술인의 기술력을 극대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협회는 1963년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해 오다가 1995년 전력기술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 창립되었습니다.

2006년은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창립 43주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창립10주년이 되는 해이고, 특히 새로 마련한 회관으로 이전한 아주 뜻 깊은 해였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 협회가 전력기술인들이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그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기 안전관리·설계·감리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기술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전력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력기술인의 교육장을 협회회관에 마련한 것을 계기로 교육의 질을 높여 전력기술인의 기술력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2.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고갈로 인해 새로운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 산업도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 될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맞춰나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연구, 제품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각 산업 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리 전기계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전기계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시너지 효과', 즉 공동작용·협동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학·연 및 협·단체가 서로 합심하여 학술교류, 기술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기존의 개최되고 있는 각종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산·학·연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기계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기관 대표자 간담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기술기준 등의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전기협회는 기술표준 연구 및 전기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각종 연구·조사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기계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의 전기계의 미래를 예측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 기준을 정립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회원들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자와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박동욱

1. 신년을 맞아 귀 기관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 관련기술의 연구와 전력기기의 시험인증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에도 성장 동력 및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술은 물론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은 '가치·윤리·혁신'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전기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분야에서는, 지난해에 도입한 전주기관리, 목표지향형 유연조직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반으로 4대 성과지표(세계 일등기술, 기술료, 논문, 특허)를 목표연도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이며 세계3대시험기관의 하나인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의 국제경쟁력과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전력시험기관 국제협의기구(STL)의 정회원 자격을 향후 3년 이내에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시험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사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심리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사업인 전력사업의 특성상 전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유가, 원전을 포함한 전원확보문제, 핵폐기물처리를 포함한 발전환경문제, 님비현상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력부하가 밀집된 수도권의 발전설비 부족에 의한 계통불안, 1970년 그리고 1980년의 고성장시대에 건설한 송변전설비의 노후화가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 확보 또는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수(Human Error)에 의한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겪고 있는 고유가, 전원입지 및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포함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대체전원 개발, 고효율전력기기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전력계통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진단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전력분야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현업에서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철저한 직업의식을 통하여 Human Error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각 산업 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연구소는 훌륭한 기술을, 산업계는 값싸고 성능이 좋은 전력기기를, 그리고 전력회사는 인재와 기술 그리고 전력기기를 활용하고 훌륭한 경영기술을 접목하여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수한 인력이 관련 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 신규인력시장 규모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전기공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기공업의 발전, 전력사업과 전기공업의 발전에 의한 신규인력시장 제공 및 우수인재 유입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전기사업자 곧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기공업계 및 학교와 연구소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전기협회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업체와 전력기기관련 기업에 국내외 기준과 규격 정보를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격정보가 우리나라 전력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협회가 우리나라의 전력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및 기술인증제도 운용 등 특화된 서비스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기술기준과 국제규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한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국제기준과 규격을 국내에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국제 기준과 규격 제정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학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조합 구현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남병주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조합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든든한 금융지원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고객과 함께 하는 조합 구현'을 2007년 경영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한 여섯 가지 실천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실현할 것입니다.

둘째, 조합 특성에 적합한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수익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임직원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육성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조합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신설, 이전 및 사옥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기공사업 발전을 위하여 장학 사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전기공사업계의 위상제고를 위한 전기공사 기술·정책연구원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기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산업의 미래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기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전기산업 관련 단체들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각 산업 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높고 화려한 빌딩이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곧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곧 인적자원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미래의 전력산업을 책임질 인재양성은 우리 전기인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전기 관련 단체들이 하나로 합심하여 후학 양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전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산업이 건설 산업과 차별화되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사 및 전기공사업체 등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육성방안을 연구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기산업 발전의 대 명분 아래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리더로서 역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준철

1. 신년을 맞아 귀 단체의 역할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전기산업은 국내건설경기 침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원자재가격 상승, 한미 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추진, 환율 하락,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 지난해에 이어 많은 어려움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전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근로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서로 배려하는 상생협력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받아드릴 줄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의 대 명분 아래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의 대형 미래 신기술 개발 참여기회 확대 강화, “전력 IT 표준화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 전력 IT 시장을 주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금년 10월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확대와 UAE, 말레이시아, 중국, 중남미, 북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 유망시장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다변화와 판로 확대, 한·미 FTA에 따른 중전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진출 방향에 대한 연구 및 수출유망 품목 조사를 통해 대미 경쟁력 강화 마련 등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코자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전력수요 증가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국내 신규 전력설비 건설은 감소하고 보유 설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급설비의 품질 유지와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심화되고 응축된 양질의 기술 개발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연구조합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예정이며,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전전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넓혀갈 예정입니다.

3. 각 산업간에 영역이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이에 대응해 전기계가 화합해서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기기의 디지털화, IT화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각 산업간의 영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산업간의 상생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산업과 전력산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크게 구분 되어 왔지만,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해외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상생 협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일례로 우리 진흥회는 지난 2004년 한전과 함께 리비아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한전의 리비아 배전사업 진출에 따른 국내 우수 기자재 업체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공동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한전을 비롯한 국내 전력회사가 설계, 시공,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국내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전력산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전기협회가 해야 할 일과 회원 서비스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간 상생협력은 각 산업별 업체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도적인 입장에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한전기협회와 우리 진흥회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 한 해는 아무쪼록 국내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분 아래 양 기관이 협력을 다지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그 초석을 다지는데 대한전기협회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